

3. 필리핀의 APEC 頂上 및 關係 會談

- (APEC의 설립 배경 및 경과) 교역 및 투자의 상호 의존도가 심화된 亞·太 지역 국가들의 교역 및 투자 환경 개선 및 이해 관계의 조절을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되었음
- (필리핀 APEC의 과제) 무역·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의 승인과 WTO 각료 회의에 대한 APEC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이 주요 과제임
- (향후 우리 나라의 과제) APEC의 기본 방향인 '개방적 지역주의'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남북 문제 해결의 場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

亞·太 지역은 경제 규모 및 교역 규모에서 세계 경제의 중심지

- (APEC의 중요성) 亞·太 지역에는 미국, 일본 등 세계 1~2위 경제 대국과 매년 10%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는 개발 도상국이 위치하고 있음
 - '개방적 지역주의' 원칙 아래 세계 무역의 자유화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하여 WTO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 기대
 - 20억 인구, 세계 GNP의 50%, 세계 교역량의 40%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인 APEC에서 회원국간의 쟁점을 조화·수렴시키는 모범적인 선례를 제시할 수 있음
 - APEC이 亞·太 지역에서 중심적 경제 기구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EU, NAFTA 등 기존의 폐쇄적인 경제 블록의 확산 추세를 견제하는 역할도 기대됨

역내 교역 환경 개선 및 이해 관계 조절을 목적으로 설립

- (APEC의 설립 배경 및 경과) 역내 성장 잠재력의 유지·확충 및 개방적 교역 질서의 확립 필요성에 의해 설립되어 89년 이후 매년 頂上 및 關係 회담이 개최되고 있음
 - 亞·太 지역 국가들의 경제력이 부상하고 교역·투자 분야에서 상호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교역 환경 개선과 이해 관계의 조절을 위한 정부간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
 - 이에 따라 1989년 11월 호주의 캔버라에서 제 1차 각료 회의가 소집되어 APEC(아시아·태평양 경제 협력체)이 출범
 - 91년 '서울 선언'으로 APEC의 목표, 활동 범위, 운용 방

- 식 등이 명문화되었음
- 93년 시애틀 회담에서는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되면서 무역 자유화의 촉진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결의
- 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(Bogor) 회담에서 '보고르 선언'이 채택되어 APEC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으며,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이 마련되었음
- 95년 일본 오사카 회담에서는 관세, 투자 등 15개 과제에 대한 자유화·원활화 계획과 인력 개발 등 13개 과제에 대한 경제·기술 협력을 96년 중으로 작성하여 97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'오사카 Action Agenda'를 채택하였음

<APEC 정상 및 각료 회의 개최 현황>

	개최 일자	개최지	참가국	합의 사항
제 1 차	1989. 11	호주 캔버라	12개국	· UR 교섭 및 다국간 무역 개방 추진
제 2 차	1990. 7	싱가포르	12개국	· 역내 에너지 협력 등 7개 분야의 협력 프로젝트 추진
제 3 차	1991. 11	서울	15개국	· 서울 APEC 선언 채택 · UR의 연내 타결을 위한 정치적 결의
제 4 차	1992. 9	태국 방콕	15개국	· APEC 사무국 설치 및 예산제도 도입 · 역내 자유무역 추진
제 5 차	1993. 11	미국 시애틀	15개국	· 무역투자위원회(CTI) 설립
제 6 차	1994. 11	인도네시아 보고르	18개국	· 보고르 선언 채택
제 7 차	1995. 11	일본 오사카	18개국	· 오사카 Action Agenda 채택

무역 및 투
자의 자유화
를 위한 구
체적 행동
계획의 승인
이 필리핀 A
PEC의 주요
과제

- (필리핀 APEC 頂上 및 閣僚 회담의 과제) 무역·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인 'MAPA(Manila Action Plan for APEC)'의 승인과 WTO 각료 회의에 대한 APEC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의 마련이 주요 과제임
- 필리핀 APEC 頂上 및 閣僚 회담에서는 고위 실무자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결론짓고 각회원국의 행동 계획을 모은 MAPA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됨
- 정상 회의를 통해 승인된 MAPA는 97년부터 亞·太 지역의 무역·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의 기초가 될 전망이다
- 또한,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WTO 각료 회의에 대비하여 APEC의 WTO 기여 방안 및 APEC 차원에서의 대

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됨

- WTO에서 APEC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결의
 - 중국의 WTO 가입을 촉구
 - 미국이 제안한 '정보기술협약(ITA)'을 포함한 일련의 WTO 문제에 관한 APEC의 입장 정리
- 한편, 역내 기업인들이 APEC의 무역·투자 자유화 추진 과정에 활발히 참여하고 그 결실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8개 APEC 회원국들은 국가별로 기업인 25명씩을 선정, APEC 정상 회담에 참석토록 하였음
- 이러한 APEC 기업인 포럼(ABF)은 APEC의 무역·투자 자유화 활동에 대한 기업인들의 이해를 제고하고,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각국 정부들이 직접 청취하는 기회로 활용될 것임

장기적으로
는 APEC을
남북 문제
해결의 場으
로 활용할
수 있을 듯

- (향후 우리 나라의 과제) 우리 나라는 APEC 이외의 다른 지역 기구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APEC에 적극 참여·활용할 필요가 있음
 - (수동적 과제) APEC의 기본 방향인 '개방적 지역주의'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
 - 일본의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주의를 차단하기 위하여 아시아 경제권과 북미 경제권의 분리 움직임을 견제해야 함
 - (능동적 과제) 4極(미·일·중·ASEAN) 대립 구조를 충분히 이용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제고해야 함
 - 미국은 APEC을 亞·太 지역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, 일본 및 중국은 미국의 쌍무적 시장 개방 압력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역내 국가간에도 APEC에 대한 기본 입장이 상이함
 - (장기적 과제) APEC을 동북아 안보 체제의 유지와 남북 문제 해결의 場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함
 - APEC 역내 개도국의 개방화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북한이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북한의 APEC 가입을 유도
- (김 재 칠)